

페퍼스, 벌써 6승...새 역사 쓸까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창단 이래 구단 최다 승을 기록하며 V리그 전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페퍼스는 지난 29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3-2로 승기를 거머쥐었다.

"디펜딩 챔피언"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귀한 승수를 더한 페퍼스는 5위(6승 12패·승점 19)자리를 유지, 남은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다.

이날 박정아는 시즌 개인 최다 27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견인했다.

그는 세트 13-11에 킥오피를 성공시켜 세트포인트를 만들면서 팀의 중요한 순간 점수를 올린다는 의미를 담은 별명 '클러치 박'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경기에서 27점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총 5982득점에 오른 박정아는 '6000득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8점만 더하면 여자부 1위 양효진(현대건설·7805득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접체절명의 순간 해결사로 나서는 박정아지만 팀의 중위권 도약을 위해 약점으로 꼽히는 리시브와 기복 있는 경기력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매 경기 꾸준히 본인의 몫을 해내고 있는 이한비도 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41.67%의 공격 성공률로 20득점을 기록하면서 국내 공격수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페퍼스의 이날 승리는 지난 14일 구단 최다승 타이(5승) 기록을 작성한 이후 3연패 끝에 이룬 쾌거

현대건설과 접전 끝 3-2 승
장소연 감독 '원팀' 성과
구단 최다승 전반기 마감
시즌 두자리 승수 '부푼 꿈'
박정아 '6000득점' 눈앞
'항공기 참사' 울스타전 취소

지만 '목표'가 남아있다.

올해 4월 페퍼스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장소연 감독은 이번 시즌 목표로 '두 자릿수 승수'를 설정한 바 있다.

장 감독은 비시즌 동안 선수단 영입 등으로 전력을 보강했고 '원팀'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기본기에 집중했고,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적용 기간을 마친 외국인선수 테일러가 본격적으로 팀의 주포로 나서고 있는 점도 반갑다.

편차가 심한 경기력이 아쉽지만 세트와 호흡이 맞아 떨어질 때 나오는 테일러의 깔끔한 공격력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게 만든다.

테일러와 함께 트윈타워로 불리는 신장 196cm의 장위는 블로킹에 더해 높은 타점을 이용한 이동공격과 속공 등으로 코트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후반기 18경기를 남겨둔 페퍼스는 매 걸음마다 구단 신기록에 도전하게 된다.

2024-2025 V리그 반환점을 돈 페퍼스는 오는 1월 9일 오후 7시 화성종합습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와의 경기로 4라운드를 시작한다.

한편,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에 도기간의 뜻을 함께하고자 내년 1월 4일 춘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울스타전'의 취소를 결정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창단 이래 구단 최다승을 기록하며 V리그 전반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지난 29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득점 성공 후 기뻐하는 페퍼스 선수단. <페퍼스 제공>

광주FC 96억6000만원 연봉 총액 울산 209억1237만원

울산HD의 3연패를 지킨 골키퍼 조현우가 '2024시즌 연봉킹'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2024 K리그 구단별 연봉 현황 발표' 자료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현우가 14억 9000만원으로 국내 선수 중 연봉이 가장 높았다.

연봉 2·3위 자리도 울산의 차지였다. 조현우에 이어 김영권(울산·14억 5000만원), 김진수(13억 7000만원)가 연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4위는 이승우(13억 5000만원), 5위는 박진성(11억 7000만원·이상 전북)이었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링가드(서울)가 18억 2000만원으로 연봉 1위였다. 이어 세징야(17억 3000만원·대구), 무고사(15억 4000만원·제르소(14억 4000만원·이상 인천), 일리첸코(14억 3000만원·서울)가 연봉 TOP5에 이름을 올렸다.

연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출전수당, 승리수당, 공격포인트 수당 및 기타 옵션 등)을 더한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K리그 구단별 연봉 현황

광주FC 1인당 연봉 '평균 이하'
울산 조현우·김영권·김진수 1~3위
링가드 18억2천만원 '외국인 1위'

군팀인 김천상무를 제외한 K리그1 11개 구단의 2024시즌 연봉 총액은 1395억 8588만원이었다.

'우승팀' 울산이 209억 1237만원이었고, 전북 204억 5157만 9000원, 서울 148억 4180만 3000원 순이었다. 광주FC는 96억 6198만 9000원으로 7위를 기록했다.

K리그1의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 499만 5000원으로 울산(6억 1206만 9000원), 전북(4억 835만 1000원), 서울(3억 7495만 1000원)이 1·2·3위를 기록했다. 광주FC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 5538만 3000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K리그2 13개 구단의 연봉 총액은 587억 6072만 1000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3070만원이었다.

수원삼삼성이 88억 7058만 4000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연봉으로 지출했다. 성남 61억 3999만 9000원, 서울이랜드 56억 6160만 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선수 1인당 평균 연봉 순위도 수원이 2억 198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랜드(1억 8165만 6000원)가 2위, 안양(1억 7802만원)이 3위였다.

전남드래곤즈의 연봉 총 지출액은 44억 8997만 7000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2737만 5000원이었다.

이번 연봉 산출은 2024시즌 동안 각 구단에 한 번이라도 등록된 적이 있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즌 중도에 입단하거나 퇴단한 선수는 실제 소속된 기간에 비례한 숫자로 포함해 계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선문대 축구 4관왕 김동화·강희수 영입

골키퍼 김동화, 선방 능력 탁월
MF 강희수, 패스 능력 뛰어난



<광주FC 제공>

광주FC가 선문대의 4관왕을 이끈 유스 출신 김동화(GK·21·사진 왼쪽)와 강희수(MF·21·오른쪽)를 불러들였다.

광주는 30일 "U18 금호고 출신이자 올해 선문대학교의 대학 축구 4관왕 주역인 김동화와 강희수 듀오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2003년생인 두 선수는 대학 3학년을 마치고 프로 무대에 도전하게 됐다.

두 사람이 버티 선문대는 올 시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을 포함해 제60회 백두대간기 추계 대학축구연맹전, U리그 2관왕, U리그 왕중왕전까지 4관왕을 달성했다.

김동화는 184cm·78kg의 체격으로 골키퍼로 큰 신장은 아니지만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뛰어난 위치 선정능을 바탕으로 한 선방 능력이 탁월하다. 또 양발을 활용한 수준급의 발드업 실력과 넓은 진영을 커버할 수 있는 빠른 발도 가지고 있어 광주의 전술 활용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김동화는 대학 1학년 때 제17회 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골키퍼상을 시작으로 2023년 제19회 한산대첩기 대학축구대회와 2024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에서 골키퍼상을 받는 등 대학 최고의 골키퍼로 자리했다.

그는 2023년 제22회 덴소컵 한일정기전, 2024년 모리스 레볼로 국제전선대회 U21 대표 선발 등 연명별 대표팀에서도 꾸준히 활약했다.

김동화는 "유스 시절 꿈을 키웠던 광주에서 프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골키퍼 선배들에게 많이 배우고 싶고 하루빨리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중앙 미드필더인 강희수는 176cm·67kg의 날렵한 체격으로 2선과 3선을 넘나드는 활동량과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 선문대 에이스로 활약한 그는 볼키퍼와 탈압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호고 시절 미드필더 조합을 구성했던 1년 후배 문민서, 안혁주와 다시 발을 맞추게 된 만큼 '금호고 케미'가 기대된다.

강희수는 "금호고 시절 문민서, 안혁주와 호흡을 맞췄었는데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대된다. 신인답게 패기 있고 악착같이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럽파, 제주항공 참사 추모

울버햄프턴 황희찬, 2경기 연속골...손흥민의 토트넘과 2-2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리그 2호 골을 터뜨린 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했다. <사진> 황희찬은 3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2025 EPL 19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라안 아이트누리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밀어준 패스를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눈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이 오른쪽 인사이드로 찬 슈팅은 왼쪽으로 절묘하게 감기더니 오른쪽 골대를 맞고 들어갔다.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궤적이었다.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2호골을 쓴 황희찬은 그라운드에서 무릎으로 슬라이딩한 뒤 뒤따라온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이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더니 잠시 서서 묵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목숨을 잃은 179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세리머니였다.

황희찬은 경기 뒤 소셜 미디어에 "경기 직전 안타

까운 소식을 접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적었다.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의 선제골을 앞세워 2-2로 비기고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이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도 황희찬과 함께 선발 출전해 이날 경기는 '코리아 Derby'였다.

손흥민은 전반 43분 페널티킥을 실패해 아쉬움을 삼켰다.

한편, 한국인 선수들이 뛰는 유럽 클럽들도 희생자 추모에 동참했다.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 김민재가 활약하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은 이날 구단 SNS 계정에 "저희 바이에른 뮌헨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함께 비통한 마음을 전하며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슬퍼하는 한국의 많은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한글로 남겼다.



hwangheechan
4.2만 158 143

bbadagun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hwangheechan 경기 직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3시간 전

박지성이 활약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구단 SNS 계정을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모든 분들과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아픔을 함께합니다"라고 애도했다. /연합뉴스

전남 '성골 유스' 공격수 이동현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성골 유스' 공격수 이동현(20·사진)을 영입했다.

광양 출신의 이동현은 지난 2010년 '리틀드래곤즈' (전남드래곤즈 보급부대 축구교실)에서 축구를 시작한 뒤 전남 U12(광양제철남초)-전남 U15(광양제철중)-전남 U18(광양제철고)에서 에이스로 활약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우선지명을 받았던 이동현은 성군관대로 진학해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2년간 45경기 9득점을 기록했다. '성골 유스' 이동현은 대학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구단의 부름을 받았다.

이동현은 171cm·65kg으로 체격은 크지 않지만,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움직임, 깔끔한 피니



시 능력을 갖춘 드리블러 스타일의 윙포워드로서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에덴 아자르(Eden Hazard)'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프로 무대를 앞둔 이동현은 "그라운드에서 신인의 패기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며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같은 전남 유스 출신으로 전남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박태용 형처럼 잘 적응해서 전남 유스의 저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